

01 교회소식

주의 말씀 의지하여...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해외 지교회들과 만민뉴스 창간 33주년 관련 소식.

02 생명의 말씀

‘가나안 정복사’ 시리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모든 과정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03 사랑의 메시지

믿음과 사랑으로 걸어온 길

하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영광과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

04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님의 은혜로 파탄 직전의 가정이 회복해진 오봉식 집사와 인도에서 ‘권능’ 영상을 통해 죽어가던 염소가 살아난 간증.

# 만민뉴스

제919호 2020년 5월 10일(주간)

##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코로나19 속에서도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해외 지교회들

해외 지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콜롬비아만민교회에서는 국가적으로 자가 격리가 시작된 3월 20일부터 방송장비를 담임 장정연 목사의 자택에 설치하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 매일 다니엘 철야 기도회를 중계하고 있다. 이에 미국, 멕시코, 온두라스,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 150여 곳에서 동시 접속하여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칫 무료할 수 있는 자가격리 기간에 말씀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와 성구 암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가족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좋다”, “온라인 예배에 믿지 않던 가족이 참석하여 전도의 기회가 됐다”는 등 훈훈한 소식도 전해진다.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역시 당분간 각종 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한편,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예배 순서지와 말씀 자료를 전달하여 가정예배를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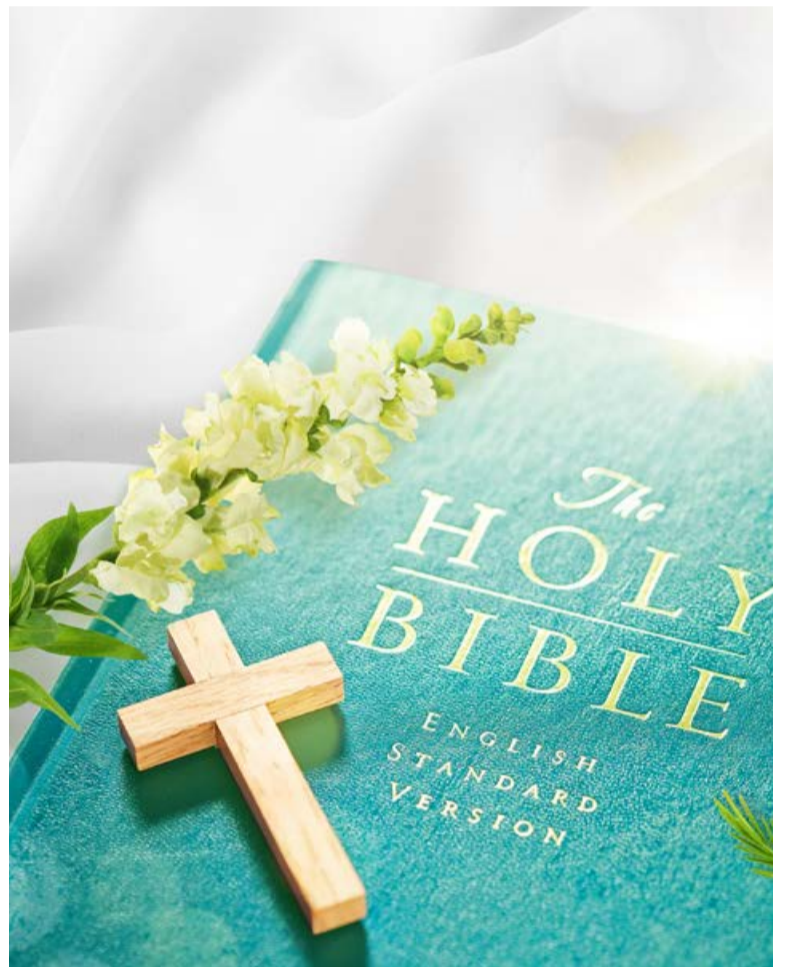
지난 4월 18일에는 구제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50여 가정을 방문하여 쌀, 설탕, 비누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담임 한진범 목사는 “성도들이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통행금지령이 발표된 필리핀의 세부만민교회는 3월 말부터 가정예배로 전환하고, 매일 오전과 오후 8시에는 개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약간의 구제금과 통조림, 라면 등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며 힘을 보탤다. 담임 성숙 목사는 “현재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성도들과 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한편, 코로나19로 통행 및 활동이 제한된 인도에서는 성도들이 ‘GCNTV HINDI’(유튜브 채널)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텔리만민교회(담임 김상휘 목사)는 성도와 ‘GCNTV HINDI’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심방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회심한 성도가 기도 받고 질병이 치료되는 등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간증들이 접수되고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만민뉴스’, 창간 33주년 맞아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지이자 전 세계 만민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 ‘만민뉴스’가 창간 33주년을 맞는다.

만민뉴스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한 성도들의 생생한 간증, 국

내외 선교 소식, 그리고 신앙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기획특집 기사 등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어왔다.

1987년 5월 17일 창간 후 1991년에는 일찍이 영문판 발간을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인터넷 만민뉴스

(www.manminnews.com)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다국어로 제작된 만민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해외 성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만민뉴스 ‘생명의 말씀’란에

게재된 내용을 자신이 설교할 때 활용하고 있다는 해외 목회자들의 간증과 성도들의 간증을 읽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은혜의 고백, 그리고 만민뉴스를 영혼들에게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낀다는 전도자들의 간증이 계속되고 있다.

# 너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당회장 이재록 목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7~10)

하나님께서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는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며, 그 안에는 축복의 길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사모함과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었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사에는 하나님의 변함 없는 사랑과 자녀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으로 40년의 광야생활과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모든 과정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지, 어떤 믿음을 내보여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애굽 땅에 거하게 된 경위,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하게 된 과정

하나님께서서는 갈대아 우르에 거하던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창 12:1~5). 아브람이 99세 때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개칭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과 함께 가나안 땅을 기점으로 주셨지요(창 17:1~8).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독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는 형이었지만 영적 축복을 경홀히 여겨 팔족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비록 간교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해 섭리를 이루어 가셨지요. 20년간의 연단을 통해 철저히 자기 의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그 후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자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먼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강대국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후 그를 통해 애굽을 큰 재앙에서 구원하셨지요. 당시 근동 지방에는 7년이나 지속되는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7년간의 재앙을 대비하므로 애굽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크게 은혜를 입은 애굽 왕은 근동지방에 든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의 일족 곧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으로 기꺼이 맞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족속은 7년간의 기근 중에도 애굽의 식량을 먹으며 평안히 거할 수 있었고, 그 뒤로도 계속 애굽에 살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 2.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철저히 낮아져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모세

세월이 흘러 요셉이 죽고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왕도 죽으니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번성해 큰 무리를 이루게 되니 위협을 느낀 왕은 이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지요.

노예를 삼아 힘든 고역을 시키며 학대함은 물론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도록 하여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멸족시키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멸족의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 왕명에 따라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주관해 살리게 하심으로

그를 애굽 왕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모세를 기르게 하셨지요.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뤄내신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궁전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동시에 모친으로부터 자기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강대국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도 화려한 궁중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고난받는 자신의 동족으로 인해 늘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일생일대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해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된 모세는 거칠고 험난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고, 자신의 앞날에 대한 계획이나 자기 민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소망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비참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지나면서 왕자로서의 자존심이나 자신감도 사라져 갔지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유숙하며 그의 사위가 되어 평범한 양치기로서의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고, 목동으로서 양치는 법을 배우며 철저히 낮아지고 섬겼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가 철저히 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생각으로는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해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면서 철저히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지혜와 능력, 방법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지요.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8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6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3.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표적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양 떼를 돌보면서 장차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인내와 온유함을 배웠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때에도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핍박과 강제 노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백성들이 심히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 앞에 나타나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일개 양치기인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리가 없거니와 자신의 민족도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줄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

성과 애굽 왕에게 말할 내용들을 세세하게 알려 주셨고, 왕이 순순히 보내지 않을 것과 여러 재앙을 내려 왕을 주관하실 것도 알려 주셨지요. 심지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올 것까지 알려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증거까지 보여 주셨습니다. 곧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 원래의 지팡이로 변했지요. 또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순식간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하얗게 되었고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니 금세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들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을 향해 떠납니다. 영적으로 지팡이는 믿음을 의미하지요. 다리 힘이 약한 사람들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걷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과 민망함이 있었지만 오직 믿음을 의지하여 생명을 건 모험의 길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증거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영계가 혼탁하고 흑암이 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권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무수한 영혼을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과 모든 이론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이 길을 감에 있어 후회치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며 사람 구실을 못하고 병석에 누운 지가 7년이 되자 남은 것은 죽음뿐인 것 같았습니다. 잘 들을 수도 없었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으며 한 발자국 떼는 것도 힘들어 혼자 힘으로는 화장실조차 가기 어려운 처지였으니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온갖 질병에 매여 있던 몸이 성령의 불을 받아 한순간에 치료된 것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정녕 살아 계시군요!” 외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곧장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 가사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몰랐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었는데. 그 후로 많은 연단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대로 지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 속에 오랫동안 한이 되었던 모든 응어리를 다 녹이고 풀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시므로 처음 만난 그날부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수록 하나님과 주님,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져 갔습니다.

만민중앙교회를 이루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자가 없어 유리하는 양 떼를 보며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의 쓰라린 마음도 느껴 보았습니다.

아무리 진리로 가르치고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며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악으로만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며 통탄해 하시던 예수님의 마음도 체휼해 보았습니다. 친히 진리의 교훈으로 가르침 받고 고락을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결국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과 사랑, 용서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다정하게 대화할 수 있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외로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오래 참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에 대해서라도 그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며 오히려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가장 낮아져서 섬길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목자가 되게 해 달라고 더 많은 기도를 해 드렸지요.

교회 개척 당시는 양 떼들의 믿음도 연약했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분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참고 바라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양 떼들을 생명같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주님을 만난 뒤, 파탄 직전의 가정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오봉식 집사 (59세, 3대대 22교구)

젊은 날, 일터에서 손가락 세 개가 절단되는 뜻밖의 사고를 당한 저는 수년간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눈물로 지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폭언과 폭행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였고, 부모님조차 제 전화 반기를 두려워하셨지요. 술에 취해 밤늦

게 전화해서 욕설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건강했던 몸도 빈혈, 이명, 허리디스크, 치질, 탈장, 십이지장염, 전립선염 등 갖가지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돼버렸습니다.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버스에서도 앉을 자리가 없으면 그냥 내려야 했고, 길을 가다가도 힘든 몸을 추스르느라 쭈그

리고 앉아있노라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몸이 아파 노동일도 못 나가니 자식들이 울어도 과자 한 봉지 사줄 수 없는 무능하고 비참한 제 모습이 싫어 자살할 생각까지 들었지만, 자식들 얼굴이 떠올라 차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나 봅니다. 오남매 중 둘째인 저는 어릴 때부터 막내 여동생을 많이 아꼈는데, 전도사가 된 동생(오인숙)이 저를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동생이 주님 얘기를 꺼내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뿐더러 매섭게 대했고, 교구장님을 모시고 심방이라도 오면 문전박대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정성에 저는 교구장님에게 “저는 술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서 살 수 없기에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교구장님은 “6개월만 교회에 다녀봅시다”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저는 2007년 2월, 만민중앙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기까지 여동생이 저를 위해 10년이 넘게 눈물로 기도를 쌓아온 은혜였지요. 그런데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한국말인데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앉아 있기조차 힘든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그해 8월,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 남선교회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성경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고, 성령 충만 기도회에 서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 제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지요.

비 오는 날 부침개 냄새를 맡으면 으레 술 생각부터 나던 저인데 웬일인지 그 뒤로는 술 먹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니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지요.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주변에 물으니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있다가에 참석했는데, 여러 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통회자복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 힘이 아니라 전폭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몇 달 뒤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직접 기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동안 고통 받던 온갖 질병을 한꺼번에 치료받았지요. 할렐루야!

건강을 되찾은 저는 다시 일터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수록 지난날 괴수 같은 제 모습이 깨달아져 아내와 자녀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아내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두 아들에게 눈물로 회개하였지요.

저의 변화된 모습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가족도 점차 마음을 열고 저를 아빠로, 남편으로 인정해 주었고 불효막심한 아들이 변화돼 복음을 전하니 부모님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던 행복이 저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요.

사는 것이 지옥 같던 세계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숨 쉬지 않던 염소가 ‘권능’ 영상을 틀어주자 살아났어요!” 시르바하두르 싱 성도 (35세, 인도 공단)



저는 올해 1월 초,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길거리에 있는 염소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염소가 숨도 쉬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니 주인이 제게 와서 염소 값을 물어내라고 다그쳤지요. 인도에서는 쇠고기 대신 염소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염소가 고급 음식인데, 한 마리 가격이 노동자 한 달 월급 정도로 비싸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권능’ 영상이었습니다.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 예배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매우 인상적으로 보았지요.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교통사고



를 당한 염소와 염소 주인 앞에서 ‘권능’ 영상을 켜서 보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숨 쉬지 않던 염소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저는 염소 값을 물지 않았고, 염소는 아무 문제없이 주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요.

이 일을 통해 저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유튜브 채널 ‘GCNTV HINDI’를 통해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가 10년 동안 고통 받던 온몸의 통증이 사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령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동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원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동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